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나누는 문화 아름다운 세상

우리민속놀이가당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주말마다 신나는 우리 민속 공연 국립민속박물관

이용안내

개관 및 관람 시간

- 3~10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 11~2월 09:00-17:00, 16:00까지 입장
- 5~8월 토요일, 공휴일 09:00-19:00, 18:00까지 입장

휴관일_ 매주 화요일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 안국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버 스 광화문 세종로 일대 버스정류장(도보로 15분)

주 차 경복궁 주차장 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길 35(110-820)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Samcheongdong-gil 35,
Jongno-gu, Seoul 110-820, Korea
Tel_ 02_3704_3114
www.nfm.go.kr

09

September 2010

정자나무그늘 수요일민속음악회

Wednesday Performances, The Museum's Courtyard
2010년 9월 매주 수요일 오전11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The Museum's Auditorium
2010년 9월 매주 토요일 오후3시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일요일민속무대

Sunday Performances, The Museum's Courtyard/Auditorium
2010년 9월 매주 일요일 오후2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강당



우리민속 **가람**

나누는 문화 아름다운 세상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9월 토요일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The Museum's Auditorium

제670회	이경선의 가야금	Gayageum performance by Lee Gyeongseon	2010. 9. 4
제671회	김지영의 춤	Dance by Kim Jiyeong	2010. 9. 11
제672회	김경희의 춤	Dance by Kim Gyeonghoei	2010. 9. 18
제673회	김미라의 해금 이야기	A story of Haegeum by Kim Mira	2010. 9. 25



10월 토요일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The Museum's Auditorium

제674회	해금으로 풀어내는 전통과 창작의 어울림	Harmony of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Arts by Haegeum	2010. 10. 2
제675회	김기화의 춤	Dance by Kim Gilhwa	2010. 10. 9
제676회	강혜란, 달렘	Kang Hyeran, Soothing	2010. 10. 16
제677회	정명희의 춤	Dance by Jeong Myunghee	2010. 10. 23
제678회	정명숙의 춤	Dance by Jeong Myungsook	2010. 10. 30

9월 일요일 열린민속무대

Sunday Performances, The Museum's Courtyard

제277회	박건희의 춤-인연	Dance by Park Geonhee, Ties	2010. 9. 5
제278회	전통무예, 모한뒤편	Traditional Martial Arts, Mwanhanmueoru	2010. 9. 12
제279회	우도농악	Woodo Farmers' Music	2010. 9. 19
제280회	당산할아버지와 함께 하는 국악마당	Korean Traditional Music Performance together with Grandfather Dangsan	2010. 9. 26

10월 일요일 열린민속무대

Sunday Performances, The Museum's Courtyard

제281회	보부상 재현놀이 한마당	Bobusang performance being reproduced	2010. 10. 3
제282회	남도 소리의 멋과 흥	Flavor of Folk Songs from Southern Provinces in Korea	2010. 10. 10
제283회	바람에 소리실어	Sound on Wind	2010. 10. 17
제284회	결련택견한마당	Performance by Kyulyun Taekun	2010. 10. 24
제285회	율명	Yulmyeong	2010. 10. 31



9월 정자나무그늘 수요민속음악회

Wednesday Performances, The Museum's Courtyard

광개토사물놀이	Gwanggaeto Saumlnoiri	2010. 9. 1
사물놀이, 세대공감	Korean Traditional Music Performance	2010. 9. 8
퓨전국악, 느낌	Korean Traditional Music in Fusion Flavor, Feeling	2010. 9. 15
판소리 흥부가	Pansori, Heungboga	2010. 9. 29

* 9.22은 추석특별공연으로 대체



* 공연일자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경선의 가야금

Gayageum performance by Lee Gyeongseon

2010. 9. 4 토요일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4 Sept 2010(Sat), The Museum's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제670회 토요일공연에서는 가야금과 민요, 전통춤이 어우러진 무대를 만나다. 가야금 연주를 맡은 이경선 선생은 춘향국악대전 가야금 병창 부분 대상 수상자로 이번 공연에서 가야금 산조, 가야금 병창, 가야금 민요곡을 선보인다. 공연은 모든 산조의 장점을 겸비 하였다고 일컬어질 만큼 짜임새 있는 구성이 일품인 성금련류 가야금 산조로 시작하여 단소의 소박하고 영롱함을 최대한 돋보이게 하는 청성곡(淸聲曲) 독주, 가야금 병창곡, 단가 죽장망혜와 춘향가 중 사랑가로 이어진다. 또한 관객들의 귀에 익숙한 경기민요를 가야금으로 반주하여 편안한 감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가야금 연주 이외에도 정교한 춤사위로 여성의 다소곳한 정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잘 알려진 달구벌 입춤과 봉산탈춤 제5과장 사자춤이 무대에 올라 공연에 다채로움을 더한다. 이번 공연은 가야금의 다양한 면모와 전통춤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흥미로운 자리가 될 것이다.

In the 670th Saturday Performance, the stage fully packaged with Gayageum performances, folksongs, and traditional dances performed by Lee Gyeongseon, the Gayageum performer, will be presented for the audiences. Lee's performance for today begins with Gayageum Sanjo, a solo folk music for Gayageum, and goes with Cheongseonggok for Danso, a small bamboo flute, and also presents singing in chorus Gayageum accompanied and folksongs for Gayageum. Thus, audiences will enjoy the diverse spectrum of musical flavor Gayageum would convey. Besides this, two kinds of dance performances will be presented; first, Dalgubeol Yipchum, and second, Lion Dance from Bongsan Mask Dance. These two dance performances will certainly make the performance for today much more colorful.



대 표 이경선 | 이경선 가야금연구소

출 연 류지윤, 여미연, 정의영, 이민순, 이형구, 이재훈, 손진실, 강종구, 양성욱, 신종원



공연순서 PROGRAM

- 1 성금련류 가야금산조
Gayageum Sanjo in the style of Seong Geumryeon
 - 2 단소 청성곡 Cheongseonggok for Danso
 - 3 가야금병창 Singing in chorus Gayageum accompanied
 - 4 달구벌입춤 Dalgubeol Yipchum
 - 5 가야금민요곡 Folksongs for Gayageum
 - 6 봉산탈춤 中 사자춤 Bongsan Mask Dance - Lion Dance
- 단가 中 죽장망혜 · 춘향가 中 사랑가

박건희의 춤-인연

Dance by Park Geonhee, Ties

2010. 9. 5 일요일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5 Sept 2010(Sun), The Museum's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제277회 일요일민속무대에서는 전통춤과 창작춤을 오가며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온 박건희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교수와 그 무용단의 무대를 만난다. 공연은 다채로운 전통춤 레퍼토리로 시작한다. 먼저, 왕실의 번영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기 위하여 왕비 또는 왕이 직접 춤을 춘다는 내용을 담은 '태평무'가 선보인다. 이어서 살풀이춤, 무당춤, 남성춤의 백미인 한량무, 한 손에 부채를 들어 여성스럽고 단아한 춤사위가 매력적인 부채산조, 호남살풀이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입춤 형식의 '동초수건춤', 3개의 북을 치며 추는 삼고무가 연달아 무대에 오른다. 마지막으로 삶과 사람의 만남, 그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희노애락을 표현한 창작춤 '인연'이 선보인다.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몸짓이 어울리는 현장을 보게 될 것이다.

In the 277th Sunday Performance, Professor Park Geonhee, who has been seeking the point where the public could communicate and share the idea of dance with the dancers and the dance company led by her will be performed. Professor Park has been constantly presenting the new contemporary dance works based on the traditional dances. In this time, she will be presenting contemporary dance works called Tie conveying four basic emotions, happiness, anger, sorrow and pleasure in one's life and Taepyeongmu wishing for an age of harmony and peace. Also, traditional dance works such as Salpurichum, Mudangchum, Hanryangmu, Buchae Sanjo, Dongchosoocheonchum and Samgomu will be presented as well. Audiences will appreciate how the art of traditional dance would embrace the art of contemporary dance this time.



대 표 박건희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교수

출 연 송중준, 전슬아, 문성준, 조점홍, 최정심, 신은영, 이하나, 서유정, 우가희, 김보아, 오은경, 김혜진A, 김혜진B, 하귀매



공연순서 PROGRAM

- | | |
|--------------------|--|
| 1 태평무 Taepyeongmu | 5 부채산조 Buchae Sanjo |
| 2 살풀이춤 Salpurichum | 6 동초수건춤 Dongchosoocheonchum |
| 3 무당춤 Mudangchum | 7 삼고무 Samgomu (Dance with the three drums) |
| 4 한량무 Hanryangmu | 8 창작무, 인연 Contemporary Dance, Ties |

김지영의 춤

Dance by Kim Jiyeong

2010. 9. 11 토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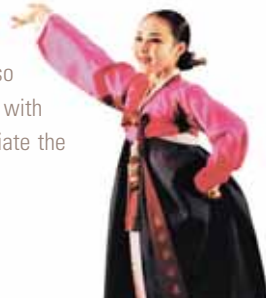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11 Sept 2010(Sat), The Museum's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제671회 토요일상설공연에는 경남무형문화재 제21호 진주교방굿거리춤 수석전수자 김지영의 춤이 선보인다. 공연은 진주교방살풀이춤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고려시대부터 진주지역에 전해 오던 진주교방굿거리춤이 무대에 오른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진주교방굿거리춤 문화재 후보인 정혜윤 선생이 직접 무대에 올라 진주교방굿거리춤에 대한 해설과 구음을 할 예정이다. 이어서 장고를 어깨에 메고 여러 가지 장단에 따라 변화시키며 추는 장고춤, 전남 진도 지방의 북놀이에서 전해진 진도북춤이 무대에 오른다. 다음으로 사물놀이를 통해 공연장의 신명을 한층 더한다. 마지막으로 삼면의 북틀위에 3개의 북을 걸어놓고 북을 치며 춤을 추는 삼고무가 선보인다.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오랜 전통이 담긴 화려하고 역동적인 춤사위, 정중동의 아름다움, 신명나는 소리에 이르는 우리 전통 연희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In the 671st Saturday Performance, Kim Jiyeong, the first-ranked transmitter of Jinju Gyobbang Gutgeori dance, Intangible Heritage No.21 in the Southern Gyeongsang province, will present her world of artistic dances; she will be performing Gyobbang Salpuri dance, and Jinju Gyobbang Gutgeori dance transmitted from back in the Goryeo dynasty. Also, the dances with drums will be performed as followed: Janggo dance with the variety of Janggo rhythm, second, Jindo Bukchum transmitted in Jindo, Southern Jeolla province, and lastly, Samgomu with its strong and unified movements. Samulnori also will be staged to make audiences not be bored and overwhelmed with the drum dances in a row. This is a wonderful chance to appreciate the very esthetics of Korean traditional dances.



대 표 김지영 | 경남 무형문화재 제21호 진주교방굿거리춤 수석전수자
출 연 최주연, 태혜신, 이춘화, 홍보람, 정유미, 타랑민속예술단

*정혜윤(경남 무형문화재 제21호 진주교방굿거리춤 문화재 후보) - 해설 및 구음장단



공연순서 PROGRAM

- 1 진주교방살풀이춤 Jinju Gyobbang Salpuri dance
- 2 진주교방굿거리춤 Jinju Gyobbang Gutgeori dance
- 3 장고춤 Janggo dance (Hourglass shaped drum dance)
- 4 진도북춤 Jindo Bukchum (Jindo Drum dance)
- 5 사물놀이 Samulnori (performance of four percussions : drum, hourglass-shaped drum, gong, and ggwanggwari)
- 6 삼고무 Samgomu (Dance with three drums)

전통무예 와한뽀루, 이충무공 학익열진

Traditional Martial Arts, Mwahanmueoru

2010. 9. 12 일요일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12 Sept 2010(Sun), The Museum's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제278회 일요일민속무대에는 전통무예 '와한뽀루'의 한 판 무예가 펼쳐진다. 와한뽀루란 "나를 떠나 누리로 돌아가는 겨레의 살길"이라는 우리말로 임진왜란 당시의 해상진법인 이충무공의 학익열진을 그 형태로 하여 1957년 경남 진주에서 창시된 무술이다. 와한뽀루는 순한글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총8,192돌굴(동작)을 가진 방대한 체계의 무술이기도 하다. 이번 공연에는 와한뽀루의 기본동작과, 검무, 군무, 창법, 8:1대련, 고단자들의 무예가 선보여 관객들에게 우리나라 무술의 새로운 면모를 소개한다. 또한 무술과 함께 구성진 소리, 무용이 함께 어울려 더욱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In the 278th Sunday Performance, traditional martial arts, Mwahanmueoru will be performed. Mwahanmueoru means "going back to nuri (the world) from myself is the path we people should pursue for our life" in Korean and is a type of Korean born martial arts established in Jinju located in the Southern Gyeongsang province in 1957. Its form is originated in the military tactics known as Hakikyeoljin, an enveloping attack on enemies with formation of a crane being spread its wings, practiced by General Yi Sunshin. Mwahanmueoru, as it sounds, is written in pure Korean words and is an extensive system of martial arts with 8,192 movements. In this performance, the basic movements, sword dance, group dance, spearmanship, 8:1 sparring and martial arts practiced by high-ranked practitioners will be presented. Also, Korean colored sound and dance will be presented as well with the martial arts.



대 표 하정호 | 와한뽀루 창시자

출 연 문대웅, 이상철, 서성원, 이정조, 한세창, 김정훈, 권중성, 오석준, 신동훈, 윤병한, 김명중, 안성수, 안성일, 배윤진, 곽병인, 류일호, 김치국, 안효진, 송영준, 신동휘, 이석준, 윤병덕, 문연식, 인성준, 소리-최영숙, 무용-이세루 외 손베추춤 무용단



공연순서 PROGRAM

- | | |
|---|--|
| 1 와한뽀루 세한손 Mwahanmueoru Sehanson | 5 와한뽀루 군무 Mwahanmueoru group dance |
| 2 와한뽀루 헛치기 Mwahanmueoru Hutchigi | 6 망경소리 한나라사람살이 Mangyemsori Hannara Saramsari |
| 3 이충무공의 상유십이 미신불사
General Yi's saying: "The twelve ships are still left and I as a humble servant am still alive." | 7 선조대왕과 왕후 King Seonjo and Queen |
| 4 와한뽀루 앞바기 압드기 Mwahanmueoru Apbagi Apdeugi | 8 한민족의 혼 The Spirit of Korean People |

김경희의 춤

Dance by Kim Gyeonghoei

2010. 9. 18 토요일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18 Sept 2010(Sat), The Museum's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제672회 토요일상설공연에는 강원대학교 김경희 교수와 그가 이끄는 무용단의 신명나는 춤판이 펼쳐진다. 이번 공연에는 태고의 태평성대를 기리는 춤인 태평성대를 비롯하여 무관복 차림에 팽과리를 들고 추는 진쇠춤, 진주 권번에서 추던 교방청춤, 진도북춤, 태평무 등 우리나라 전통춤의 다양한 레퍼토리가 무대에 오른다. 또한 전통춤 외에도 가야금 선율에 맞추어 부채를 들고 추는 춤으로 남녀간의 애뜻하고 정겨운 사랑을 표현한 창작무, '꽃과 나비'가 무대에 올라 전통 춤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출연진 전원이 무대에 올라 북과 소고, 장고를 들고 치면서 자유롭게 역동적인 장단에 맞추어 추는 창작무, '가락을 타고'를 통해 무대를 압도하는 신명과 흥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평소 한국 춤의 활성화와 전통무용의 저변 확대를 목표로 활동해 온 김경희 선생의 노력의 결실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In the 672nd Saturday Performance, professor Kim Gyeonghoe with the dance company led by professor Kim will be performing on dance stages full of fun and excitement. Performance begins firstly with Taepyeongseongdae wishing for an age of peace and harmony and goes with the Korean traditional dances in a row: Jinsoechum with accompaniment of Ggwaenggwari. Gyobangcheong dance performed among female artists known as Gisaeng in Jinju, Jindo drum dance, and Taepyeongmu. Other than the traditionally flavored dances, contemporary dance called flower and butterflies conveying love between couples will be presented as a way of seeking a new path of Korean dance. For the last stage, flowing with melody also as a contemporary dance will be performed by all the dancers of the dance company.



대 표 김경희 | 강원대학교 한국무용학과 교수

출 연 최혜선, 손주희, 이종화, 정하나, 장하나, 송용경, 김애진, 남궁예나, 박윤아, 하승화, 윤애람, 김도영, 정두연, 최장미, 호유진, 박미래, 엄송하



공연순서 PROGRAM

- 1 태평성대 Taepyeong Seongdae
- 2 진쇠춤 Jinsoechum
- 3 꽃과 나비 Flower and Butterflies
- 4 교방청춤 Gyeobangcheong dance
- 5 진도북춤 Jindo drum dance
- 6 태평무 Taepyeongmu
- 7 가락을 타고 Flowing with melody

우도농악

Woodo Farmer's Music

2010. 9. 19 일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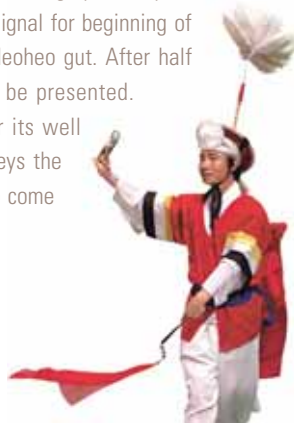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19 Sept 2010(Sun), The Museum's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제279회 일요일민속무대에서는 전남무형문화재 제17호 우도농악의 흥겨운 연희판이 벌어진다. 우도농악은 전남 서남 해안지역의 농악에 뿌리를 둔 걸궁굿으로 특히, 설장구, 부포놀이, 북놀이, 12발 상모 등 개인 놀이가 잘 발달했다. 공연은 굿의 시작을 알리며 서서히 흥을 올리는 모듬굿을 시작으로 가장 어려운 채굿 가운데 하나인 오채질굿, 허허굿으로 이어진다. 공연의 중반부터는 개인놀이가 이어진다. 개인놀음은 조선시대 광대 재인들이 관청에 나아가 연희하던 옛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해지며, 이번 공연에도 상쇠가 추는 부포놀이, 설장구 등이 선보여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현란한 기량과 신명을 선사할 것이다.

In the 279th Sunday Performance, Woodo Farmers' Music, Intangible Heritage No.17 in Southern Jeolla province, will be presented. Woodo Farmers' Music is a kind of gut based of farmers' music. Especially, individual plays such as Seoljanggu, Buponori, Buknori and 12m long Sangmo have been highly developed. The performance for today begins with assorted gut as a signal for beginning of the whole performance and goes with Ochaejil gut and Heoheo gut. After half way through the performance, the individual plays will be presented. Gujeongnori of Woodo Farmers' music is well known for its well structured and preserved form of its original one; it conveys the scene in which artists like clowns and entertainers used to come to the local court and perform back in old times.



대 표 최용 | 우도농악보존회장

출 연 송미경, 박주현, 장동익, 박원용, 이상호, 최은미, 김정희, 장지훈, 김주범, 신진, 김영복, 서두환, 신호현, 유동식, 김희례, 진미영, 김민석, 문진수



공연순서 PROGRAM

- | | |
|--------------------------------------|--------------------------|
| 1 모듬굿 Modeum gut | 5 설장구 Seoljanggu |
| 2 오채질굿 Ochaejil gut | 6 북놀이 Buknori |
| 3 허허굿 Heoheo gut | 6 소고놀이 Sagonori |
| 4 부포놀이(상쇠춤) Buponori (Sangsoe dance) | 6 12발 상모 12m long Sangmo |

김미라의 해금 이야기

A story of Haegeum by Kim Mira

2010. 9. 25 토요일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25 Sept 2010(Sat), The Museum's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제673회 토요일상설공연에서는 국악기의 8음을 모두 갖춘 유일한 악기인 해금의 다양한 면모를 만난다. 이번 공연에는 경기도립국악단 상임단원인 김미라가 전통 해금의 선율과 현대 관객들의 귀에 익숙한 곡들을 함께 연주하여 해금의 폭넓은 소리를 선보인다. 공연은 영산회상의 뒤에 연주하는 '천년만세'로 시작되며, 피리와 양금, 장구와 함께 연주한다. 이어서 풍부한 남도선율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서용석류 해금산조, 영산회상의 첫 번째 곡이자 장중한 정악의 멋스러움이 가득한 '상령산'을 피리독주로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퓨전 해금 연주곡으로 가장 잘 알려진 곡 가운데 하나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 드라마 OST, 비틀즈 메들리 등 관객들에게 친숙한 곡들을 해금으로 연주하여 새로운 소리를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In the 673rd Saturday Performance, audiences will taste the diverse flavors of Haegeum. Kim Mira, the Haegeum performer, will be presenting a wide selection of Haegeum sound by playing the traditional tune and familiar melody for audiences. The performance begins with Cheonnyeon Manse, a type of court music, accompanied by Piri, Yanggeum, and Janggu and goes with Haegeum Sanjo in the style of Seo Yongseok a magnificent and solemn Piri solo called Sangryeongsan, the beautiful things in the world which is a well-known piece among people, OSTs from the soap operas and a medley of Beatles which audiences found themselves familiar with the music to give audiences a chance to explore the sound of Haegeum with the traditional colored music and popular music.



대 표 김미라 | 경기도립국악단 상임단원

출 연 조광희, 김정선, 박정신, 김보미, 안은경, 박도영



공연순서 PROGRAM

- 1 천년만세 Cheonnyeon Manse
- 2 서용석류 해금산조 Haegeum Sanjo in the style of Seo Yongseok
- 3 피리독주, 상령산 Piri Solo- Sangryeongsan
- 4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 The beautiful things in the world
- 5 드라마ost..추노(비익런리) 동이(천애지아) OSTs from the soap operas
- 6 비틀즈메들리 a medley of Beatles

당산할아버지와 함께 하는 국악마당

Korean Traditional Music Performance together with Grandfather Dangsang

2010. 9. 26 일요일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26 Sept 2010(Sun), The Museum's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제 280회 일요일민속무대에는 전남 무형문화재 제17호 영광우도농악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연희단체 수시변통의 국악 마당이 펼쳐진다. 공연은 당산나무 아래서 당산굿을 치는 것으로 시작하여 성금련류 가야금 산조로 분위기를 고른다. 이어서 초등학교들로 구성된 '하늘땅'의 어린 연희자들이 타악 퍼포먼스를 펼쳐 관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또한 무가(巫歌)반주 음악에서 나온 태평소 시나위, 힘이 넘치는 모듬 북 연주를 통해 국악의 다양한 신명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공연의 모든 판에는 우도 농악의 백미인 구정놀이(구정놀이가 곁들여져 연희되어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은 신명과 재미, 우리 가락의 흥취를 한껏 느낄 수 있을 것이다.

In the 280th Sunday Performance, Susibyeontong, which found its musical root to Woodo Farmers' Music, Intangible Heritage No.17 in Southern Jeolla province, will be presenting Korean traditionally flavored stages. The performance begins with Dangsang gut and goes with Gayageum Sanjo in the style of Seong Geumryeon to make the exiting mood from the gut cool down. After the Gayageum performance, Haneulddang, the percussion group of children will be giving a percussion performance. Also, Taepyeongso Sinawi, Modeum Buk Performance(a musical feast of all kinds of drums) will make the mood upbeat again and make the audiences cheerful and hopeful. Since Gujeongnori, the highlight of the Woodo Farmers' Music, will be performed in every stages of the performance for today, audiences will experience and explore fun, excitement and joy of Korean traditional melody and rhythm.



대 표 이상호 | 수시변통 대표, 무형문화재 제17호 영광우도농악 이수자

출 연 민주옥, 박주현, 장동익, 김정희, 김영복, 서두환, 신진, 문희, 고희정, 민병일, 김정숙, 류지희, 배은선, 박현정, 서정식, 이재민, 박설리, 이서이, 이서윤, 이서정, 전서진, 박민경, 이지희, 김경민, 이상임, 김월수, 양정민, 이루사리아, 송미경



공연순서 PROGRAM

- 1 당산굿 Dangsang gut
- 2 가야금 산조 Gayageum Sanjo in the style of Seong Geumryeon
- 3 어린이 타악 퍼포먼스 Percussion performance by children
- 4 태평소 시나위 Taepyeongso Sinawi
- 5 모듬 북 연주 Modeum Buk Performance (a musical feast of all kinds of drums)